| 한국중동학회논총 | 제40권 제3호 [2020. 2]: 31~58

지역연구의 종합성, 학제성과 한국의 MENA지역 연구*

|정 상 률**|
Jung, Sang-Ryul

Synthesis, Interdisciplinary of the Area Studies and MENA Area Studies in Korea

Area studies began long ago on a 'travel diary' but today area studies which is characterized by 'practicality, synthesis and integration, interdisciplinary, consilience' germinated during World War I and began to become a major 'study' at U.S.A. in the postwar period. Area studies began at the level of ‘practicality and utility', which required synthesis, interdisciplinary, convergent and consilience research. At the academic level, however, there has been a debate over academic hegemony between the disciplines(division studies) and area studies. After a fierce debate, there is a convergence between ‘the methodology of division studies’ and ‘the regional specificity of area studies’.

Korea's MENA area studies began in 1980 with the publication of the Korean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and it began to grow into a practical and interdisciplinary discipline from the 1990s, with the support of area research by the govern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a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in universities. However, when analyzing the papers published in the KJMES, some purpose has been achieved, but there are still insufficient aspects in terms of research methods called ‘area studies’.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0-362-A00004).

** 정상률/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HK교수, E-mail: skyblue8731@hanmail.net

[Key Words : Area Studies, Practicality, Synthesis, Interdisciplinary, Consilience, Ethnography, Triangular Axis of Area Studies, Nomothetic Studies, Ideographic-configurative Studies, Area Studi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 서론

지역연구는 오래 전에 시작되었으나, 오늘날 '지역연구(area study)'라는 용어와 함께 '종합적, 학제적 연구'라는 특성을 가진 지역연구는 1, 2차 세계대전 중에 발아하여 전후시기에 미국에서 주요 '학문'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사실 영국, 프랑스, 일본을 비롯한 식민통치 경험을 가진 선진국들은 식민통치시기부터 이미 지역학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식민지 정책을 입안했다고 할 수 있다. 소위 근대화를 성취한 선진국들은 식민지 시기의 '식민정책', 탈 식민지 시기의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등 제3세계 정책' 수립 목적으로 지역연구가 수행되었다. 따라서 지역연구(지역학)는 이론적, 학문적 지향을 가졌다기 보다는 현실 적용, 즉 '정책 입안을 위한 기초 지식 제공'이라는 실용적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의 경우, 1920년대와 30년대에 언어학자, 역사학자, 인류학자들은 미국의 정책 대상 지역에 대한 인문학적 지식을 제공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냉전시기에 지역연구는 새로 독립하여 '근대화 발전 전략'을 시도하려고 하는 제3세계 국가들에게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용성 지향'의 사회과학자, 특히 정치학자들이 주도했다. 그러나 사회과학자들은 분과학문 고유성을 중심으로 하는 학자와 지역연구를 중심으로 하려는 학자 간에 '상호 비판'의 시기를 맞았다. 탈냉전기에 접어들면서 '지역 특수성에 대한 몰이해'라는 비판을 받는 분과 학문과 '독자적인 연구 방법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 지역연구 간의 '협력의 필요성과 협력 연구'가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연구도 '열하일기' 같은 여행기에 뿌리를 두고 있고, 한국외

대에서 처음으로 세계 많은 지역의 언어, 그 지역 문화, 정치와 경제 등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운영하면서 시작되긴 했지만,[1] 종합적 학문으로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이며, 탈냉전기와 세계화 현상, 경제발전에 따른 다양한 방면의 타 지역 진출 위한 기초 지식의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특정 지역 연구를 위한 재정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대학의 연구자들이 정부로부터 '연구비 수주' 경쟁을 하거나 대학에서 '지역연구 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중동지역 연구의 경우, 1990년대 중후반 내지는 2000년대 들어서서 종합적, 학제적(학제간, 다학제, 초학제) 중동지역연구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1990년대부터 국내에서 지역연구대학원이 설립되었고, 지역연구의 종합성, 학제성을 강의했으며, 그로부터 배출된 신진 학자들이 최소한 지역연구의 종합성, 학제성을 크게 인식하고 글을 쓰기 시작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동지역 연구의 종합성, 학제성'과 '연구방법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외교부, 산자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 '특정 문제(specific problem)'와 관련이 있는 정부 부서의 재정지원으로 정책적 필요에 따라 해당 공무원, 정보부서 담당자, 지역연구학자, 지역진출 기업 등으로 구성되는 포럼이나 세미나 및 학술대회 등을 통해 취득한 기초 자료로 정책을 입안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지역연구 초기의 '실용성'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새로운 연구 방법을 개발한다든가 분과학문과 지역연구 간의 '연대감'은 아직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분과학문과 지역연구 간 연대감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높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지역연구와 중동지역연구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1990년대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공일주의 "아랍어 언어학 연구의 최근 동향과 전망"(1996), 장병옥의 "중동연구의 현황과 과제"(1996). 하병주의 "한국

1) 중동지역 연구 논총인 「한국중동학회논총」은 1979년부터 출판되기 시작했으므로 2019년에 40주년이 됨.

의 아랍중동학: 석박사학위 논문의 연구 동향 분석”(1996), Rew, Joung Yole의 "The Middle Eastern Area Studies in Korea"(1997), 서재만의 “중동지역연구의 현황과 과제”(1998), 김정위의 “한국 중동학 연구의 회고와 전망, 인문과학분야”(1999), 서재만의 “한국 중동학 연구의 회고와 전망. 사회과학분야”(1999), 송경숙의 “한국 중동학 연구의 회고와 전망. 어문학분야”(1999) 등의 연구논문이 있다. 하병주는 “중동연구의 새로운 지평”(2002), "Role of Academic Institutions, Research Centers and Associations in the Development of Korean-Arab Relations: A Korean Perception“(2002)을 발표한 바 있다. 2003년 6월에 한국세계지역학회는 <지역연구 대상과 방법의 다원화>라는 대주제 하에 학술대회를 개최했고, 하병주는 이 학술대회에서 “중동지역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발표문에서 석박사학위 논문의 주제 분류(1945-99), 중동지역 관련 정규 교육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현황, 한국중동학회 회원(1979~2002), 한국중동학회 회원의 전공분야(1979~80, 1981, 1990, 2001), 한국중동학회 논총의 게재논문 주제분류(1980~2000) 등 당시의 중동지역 연구 현황을 자세히 분류하고 설명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록펠러재단(The Rockefeller Foundation), 카네기재단(The Carnegie Corporation), 포드재단(The Ford Foundation) 등 재단 중심의 대학 지역연구 지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한국의 중동지역 연구 현황 중심의 논의이며, 지역연구 및 중동지역 연구의 종합성, 학제성 및 연구방법에 관한 논문이 아니었다.

Ⅱ. 지역연구란?

지역학 또는 지역연구란 특정 지역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그 지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 총체적 연구이며, 그 지역 전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그 지역에 대한 정책 입안과 실행에 기여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지역연구 역사 초기에는 각 분과학문과 종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지역학 간에 학문 패권을 둘러싸고 갈등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상호 협력, 상호 보완의 대상으로 상호 인정하는 추세이다. 지역연구는 분과 학문에서 개발한 이론이나 분석 방법을 활용하고 있고, 각 분과학문은 지역학에서 발견한 연구지역의 인류문화적 특성, 그 지역 특유의 정치경제체제 등을 학습할 수 있으며, 분과학문 연구자들이 여러 제약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 지역 고유의 종교와 언어, 인종적, 부족적 특수성, 지정학 및 지경학과 관련하여 지역연구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가끔 지역학 연구자들의 연구가 연구방법 없이 역사적 사실이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황들을 나열하는 데 그침으로써 (서술, 기술 방법도 아닌 경우가 있음) 학문적 비판을 받는 경우가 있다. 역으로 각 분과 학문 연구자들이 특정 지역연구에 뛰어들었으나 그 지역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존 연구 방법, 특히 미국이나 유럽 중심의 연구방법이나 이론에 끼워 맞춤으로써 매우 건조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MENA 지역 연구는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 총체적 연구이나 그 지역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각 분과 학문에서 개발해놓은 연구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학문적 심도를 높일 뿐 아니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MENA 지역의 특수성은 종교적 특성,[2] 인종적, 부족적 특성, 석유 지대경제의 특성과 외부 원조에 의존하는 지대경제 특성, 국가나 조직의 이념 다양성 등 매우 많은 편이지만, 정치학, 경제학, 문화인류학, 언어학, 심리학 등 각 개별 학문의 연구방법(과학적 연구방법 및 비교연구방법, 정치경제학, 종교와

2) 3대 종교의 탄생지일 뿐 아니라 종교의 다양성, 각 종교 내 종파의 다양성, 각 종파의 특성 등.

정치, 문학과 정치.....등과 같은 연구주제)을 활용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Ⅲ. 지역연구의 역사와 MENA 지역연구

1. 지역연구의 태동과 변화

지역연구(area study)는 '지역연구'란 용어를 사용하기 이전부터 있었다. 지역연구는 '나(자기)'와 구별되는 '타자(타인)'를 인식하고 그 인식을 언어, 행동, 정책으로 표현, 기술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area study'란 용어는 20세기에 들어서서,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그리고 MENA 지역에 대한 정책 입안을 위한 그 지역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연구자들에게 '지역연구 프로젝트'를 요청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보다 오래 전부터 승려, 학자, 탐험가들이나 여행가들이 지역 방문 경험을 '여행기'라는 장르를 통해 공개하면서부터 지역연구는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타키투스(Tacitus)의 게르마니아(Germania)와[3] 진수의 삼국지위지동이전(三國志魏志東夷傳),[4] 중국에서 밀교를 연구하다 723년부터 4년 동안 불교의 본고장인 인도 순례 후 기록한 신라 승려 혜초(704~787)의 「왕오천축국전」, 25년 동안(1271~1295년) 중앙아시아, 중국(원나라), 수마트라, 스리랑카, 인도에 대한 견문을 기록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5] 중세로 분류되는 시기인 14세

3) 게르마니아(98년)는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Publius Cornelius Tacitus, 55~115년)가 라틴어로 게르만족의 기원·풍속·관습·사회를 서술한 총 46장으로 구성된 지리적 · 민족학적 소책자임.

4) 진수(陳壽)가 280~289년 사이에 편찬한 중국 삼국 시대에 관한 정사(正史)인 <삼국지>는 <**위지**(魏志)> 30권, <촉지(蜀志)> 15권, <오지(吳志)> 20권으로 되어 있으며, <**동이전**(東夷傳)>은 <**위지**> 30권 중에 맨 마지막 30에 들어 있는데, 서 · 부여 · 고구려 · 동옥저(東沃沮) · 읍루(揖婁) · 예(濊) · 마한(馬韓) · 진한(辰韓) · 변한(弁韓) · 왜(倭) 등 당시 중국인의 시각으로 한국 고대사회의 생활과 풍속을 기록해 놓았음.

5) 「동방견문록」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에 결정적 역할을 함.

기에 중동지역과 중국 등 12만㎞ 여행을 기록한 이븐 바투타(1304~1368)의 「여행기」(Rihla, 1325년), 신숙주의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6] 조선 후기의 북학파 학자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열하일기」(1780~1783년)[7] 등은 여행지의 견문(정치, 사회, 문화, 경제, 지리, 기후, 가정생활, 의상, 식생활.....)을 수필, 일기, 편지 등으로 기록한 장르로서의 '여행기'이며, 지역연구의 기반이 되는 것들이다.

유럽에서 15세기는 암흑의 시대인 중세로부터 휴머니즘, 이성, 합리성, 자아발견의 시대, 즉 근대로 넘어가는 대전환기였다. 세기말 유럽의 대항해시대에 유럽인들이 타 지역을 탐험한 탐험가들이나 여행가들이 인쇄술 발전에 따라 기록하면서 여행기는 하나의 붐을 일으켰고, 18세기에는 여행기가 일반화된 것 같다. 흥미로운 항해담과 환상적인 이야기를 통해 부패와 탐욕과 폭력이 난무하는 문명사회를 비판하고 인간의 본성을 날카롭게 풍자하는 풍자소설인 조나단 스위프트(Jonathan Swift, 1667~1745)의 「걸리버 여행기」(1726년)가 '여행기'라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아 18세기에는 여행기가 사람들에게 많이 읽혔던 것임을 알 수 있다.

---

6) 영의정 신숙주가 성종의 명을 받아 서장관(書狀官)으로서 1471년 해동제국(일본 본국, 규슈, 이키섬, 쓰시마 섬, 유구국)을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세(지도로 그림), 국정·교류연혁 및 사신을 접대하는 예절 등을 기록함.

7) 1780년(정조 4) 청나라 건륭제(乾隆帝)의 칠순연(七旬宴)을 축하하기 위하여 사행하는 삼종형 박명원(朴明源)을 수행하여 청나라 고종의 피서지인 열하를 여행하고 돌아와서 청조치하의 북중국과 남만주일대 견문을 기록한 일기이자 일종의 여행기임.

* 「걸리버 여행기」(1726년)의 삽화
걸리버 여행기 3편의 내용 중 일본 옆에 있다고 하는 라퓨타섬에 관한 이야기인데, 삽화에 Corea가 쓰여져 있음.

여행기가 최절정에 이르렀을 때인 18세기에 전 세계 동식물, 광석, 지질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이것들의 체계적 분류는 19세기에 태동한 민족학과 인류학, 민족지학(ethnography)에 영향을 미쳤다. 이때 '원주민'은 민족지 저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방적으로 시선을 받는 '객체(타자)'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민족지학은 연구지역의 '원주민 관점'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몰개성적, 비인격적, 초인격 시선, 즉 '과학적'인 시선, 현지관찰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은 아직도 '객체'로 남아 있었다. 민족지학은 현장조사연구(field work)와 (낮은 수준의) 과학적 연구라는 지역연구의 핵심 의제를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지역연구에 기여했다.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자아정체성은 그리스도교도, 이성과 합리성, 진화된 백인,[8] 문명사회이고, 타자의 정체성은 이교도, 감성과 직관, 유색인, 야만과 미개

8) 19세기 중반의 찰스 다윈(C.R.Darwin)의 생물진화론은 '약육강식' '적자생존' 법칙을 제시했고, 영국의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H.Spencer)의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의 기반이 되었는데, 이는 서구(유럽) 및 서구인(유럽인)을 '진화된 사회' '진화된 인종'으로 보는 시각임. 사회진화론은 인종차별주의, 나치즘, 파시즘, 군국주의, 제국주의,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양육강식, 식민지 근대화론

라고 인식했다. 이러한 이분법적 인식은 '유럽 중심주의'라는 특정 인종 중심주의(ethnocentrism)로, 결국에는 19세기 말 ~ 20세기 초에 제국주의로 나타났다.

지역연구(area study)는 1, 2차 세계대전 중에 싹이 트기 시작했고, 전후시기에 미국에서부터 주요 학문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타자에 대한 시선의 주체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바뀌었고, 비서구 지역이 탈식민지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미국과 소련 중심의 양극 체제 및 냉전 시기로 접어들었다. 이 시기는 아시아, 아프리카, MENA에서 서구의 창조물인 '근대 국민국가'라는[9]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시기였으나 이들 국가들은 냉전체제에 편입되거나 제3의 길(제3세계)을 선택해야 했으며 '국가건설(state building)'과 '국민건설(nation building)' '민족 통합과 근대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10]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연구의 주체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바뀌었고, 지역연구의 대상은 비서구 세계의 국민국가 또는 특정 문화(이슬람문화, 부족문화, 언어권....등)를 공유하고 여러 국민국가들을 포함하는 특정 '지역'이었다.

을 옹호하는 이념이 되기도 함.

9) 유럽에서 '근대 국민국가'는 30년 전쟁 이후 당시 주요 행위자들(Holy Roman Empire, Spain, France, Sweden, Dutch Republic)이 조인한 웨스트팔렌 평화조약(Peace of Westphalen)에 의해 형성된 주권적 영토체계로서 다음 원칙을 합의했음. ①국가주권원칙과 근본적인 국가 자결권 원칙, ②국가들 간 법적 평등의 원칙, ③국가 내부 문제에 대한 타국의 불개입 원칙.
이러한 원칙 하에 각 국가는 영토 범위(국경)를 획정하고, 국민을 건설하고자 했으며, 각종 제도를 건설함. 관료제, 경찰 및 상비군을 구축하고, 이들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 제도를 도입함.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영토 획정 문제로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국민 형성을 완성하지 못한 국가가 있으며, 제도 건설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음. 일부 학자들은 MENA 지역 여러 국가에서 아직도 '국가건설 중(in nation-state building)'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웨스트팔리아 주권적 영토체계의 MENA 지역 적용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함. .

10) '국민건설'에 실패한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은 오늘날에도 deep state, state in state, state failure 현상이 다수 있음.

2. 지연연구 변동 양상과 분과 학문과의 관계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지역연구(area studies)는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직후에 미국 정부의 정보 및 군사적 필요에 따라 시작되었다. 미국 지역연구의 세 축은 정부의 정보 관련 부서, 대학, 포드(Ford) 같은 재단이었다.[11] 1940년대 중반에 존 F. 케네디(JFK)와 존슨의 국가안보 고문(National Security Advisor)이었고 유명한 매파로 알려져 있는 번디(MeGeorge Bundy)는[12] 1864년에 '지역연구의 최초 중심지는 (미국의) 전략국 사무실(Office of Strategic Services)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지역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대학과[13] 정부의 정보 수집부서 간 밀접한 협력 관계가 있었음을 밝혔다(Khosrowjah 2011, 134). 사이드(Edward Said)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 지역연구를 '낡은 유럽 오리엔탈리즘(a continuation ofold European Orientalism)의 연장'으로 비판적 해석을 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역연구가 미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지역연구 역사와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군사적 필요에 의해 지역연구가 시작되었으나 종전 이후에는 지역연구가 대학 내에서의 사업(정부, 기업, 재단으로부

11) 포드 재단은 독립적 비정부 기구인 사회과학연구위원회(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SSRC) 같은 단체를 통해 지역연구를 지원함.

12) 번디는 지역연구의 3각 축 모두에서 주요 역할을 한 인물임. 그는 하바드 대학 교수(1953~61),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dministration, NSA)에서 사임한 후에 뉴욕대학(New York University)에서 역사 교수(1979~89), 사단법인 카네기(Carnegie Corporation) 상임연구원(Scholar-in-Residence, 1990~96), 마샬계획(Marshall Plan)의 시행, 유럽 반공산주의 활동에 대한 불법 자금 지원 역할을 포함하는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의 여러 프로젝트 참여, 피그만(Bay of Pigs)과 쿠바 미사일 위기 및 베트남 전쟁의 확대에 결정적 역할자, 포드재단 회장(1966~79) 역임.

13) 심슨(Christopher Simpson)의 비밀해제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역연구 3각 축의 짜깁기(interweaving)는 전반적으로 사회과학으로 확대되었음. 콜럼비아 대학의 Paul Lazarfeld's Bureau of Applied Social Research, 프린스톤(Princeton)에 있었던 Hadley Cantril'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ocial Programs, MIT의 Ithiel deSola Poole's CENTS program 같은 연구소 프로젝트 연간 예산의 75% 이상이 정부 지원금이었음. 1952년 공식자료에 따르면, 당시 정부의 사회과학계에 대한 기금의 96%가 미군으로부터의 기금이었음(Cumings 1999, 186; Khosrowjah 2011, 135재인용).

터 프로젝트 수주) 및 학문의 일환(지역연구 방법론, 이론 구축)으로 발전했다. 정부의 제3세계에 대한 정치군사적, 경제적 지원과 관련한 정책적 필요와 학문적 지식생산 즉 이론 및 방법론 구축의 필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책무가 대학의 지역연구자에게 주어졌다. 이는 기존 분과 학문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지만 협력을 통한 학문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책무이기도 했다. 특히 분과학문의 이론이나 패러다임(과학주의 및 비교연구방법)의 지역연구에의 적용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대학 정치(university politics)에서 패권을 경쟁하기도 하고, 지역연구의 학제성, 종합성, 정책적 필요성(실용성)에 따라 협력하기도 했다. 분과학문이기도 하고 지역연구이기도 한 네오 맑시즘, 종속이론의 하나인 세계체제론 같은 구조주의, 또는 구조기능주의 연구(structural-functional approach)는 기존 미국 및 서구 선진국 사회과학계의 이단아로 등장하였으나 제3세계권 학자들이 수용하여 국제관계에서의 자국의 지위를 설명하는 데 활용하기도 했다. 또한 지역연구의 특성인 '종합적' '학제적' 연구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 조직이 필요했는데, 그 조직 형태가 '장기적 공고성'을 갖추었다기 보다는 위원회 구조(정부 정보부서 및 외교부, 지역전문학자, 지역 진출 기업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 외부(정부, 기업, 재단) 연구 기금을 받는 대학 지역연구소(연구센터, 연구원), 일부 NGO 등과 같은 단기적, 느슨한 조직형태를 띠고 있었다.

둘째, 주로 제3세계권 개별 국가 연구와 국가들의 집합인 특정 지역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또한 '지역' 범위는 연구자의 분류 기준에 따라, 정책적 필요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대체로 1945년부터 소련이 붕괴된 시점인 1991년 까지, 지역 영역과 연구 영역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는 소련과 그 영향력 지역이 주요 결정요인이었다. 즉 미국은 제3세계권 국가들을 친소-반소로 구분하기 위해, 또는 미국의 국가 이념인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연구 프로그램을 발주했다. 소련 붕괴 이후인 탈냉전기에 패러다임의 이동 현상이 나타났고, 지역 간 명확한 경계선

(coherent boundary)을 긋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이슬람' '이슬람 세계'라고 범주화 하는 것은 지역, 적과 친구, 패권 전략, 새로 편입된 지역 통제를 개념화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유용했다. '중동 지역'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지역' '레반트 지역' '걸프 지역' '아라비아반도 지역' '마그립 지역' '아랍어권' '페르시아어권' '투르크어권' '베르베르지역' '쿠르드지역' '순니파 지역' '시아파 지역' 그리고 각 '국가' 등과 같이 MENA 지역의 지역 범위는 여러 개로 쪼개어 개념화할 수 있다. 또한 '국가들의 집합'을 지역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인종적, 종교적, 지리적, 역사적, 언어적, 문화적 공통성 각각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하고, 그 분류 지역에 대한 각 분과학문들의 종합을 통한 연구, 즉 학제적, 종합적 연구가 강조되었다. 최근에는 '민주주의'가 자유기업의 필수불가결성, 이슬람과 이슬람 문명에 대한 반감으로 강조되기도 했다. 고전적인 오리엔탈 프로그램들(classical Oriental programs)을 통해 '중동' '극동(Far East)'의 고대문명연구, 죽은 언어(dead languages) 연구가 진행되었고, 어떤 특정 지역 각 국가들의 문화 연구로 이어졌다. 고대 문서나 시의 번역, 문화 관련 텍스트 번역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문화 간 소통(intercultural communication)이기도 했지만, 국제사회의 권력관계, 지배 형태, 즉 현재의 권력 형태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했다. 즉 번역 작업은 전적으로 중립적인 절대적 평등의 공간이 아니었다. 이는 지역연구 프로그램이 '중립적 연구영역'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지역연구에서 진행된 비교문화 번역 작업(cross-cultural translation)은 식민지 유산(heritage of colonialism)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정보를 입수했고, 이전의 서구 강대국들의 식민지 이익을 지속적인 세계 질서로 재조정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다(Khosrowjah 2011, 132-133).

셋째, 지역연구의 연구 방법에 대한 비판과 논쟁이 있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분과학문과 지역연구 간의 상호 인정 및 협력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전후 미국 사회과학은 크게 두 개의 조류가 있었다. 하나는 법칙정립적(nomothetic) 접근방식으로서 이는 특정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일반법칙(general law), 보편법

칙 발견을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성(개별)기술적(idiographic) 접근, 형상서술적 연구방법(ideographic-configurative studies)(이상환·김웅진 외 2002, 11-20)으로서 특정한 시공간의 맥락 안에서 구체적인 기술(description)을 통한 보편화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었다.[14] 지역연구자들의 주요 연구방법으로 간주되었던 개성기술적 접근법은 일종의 해석적 연구 방법이며, 이 방법은 연구 대상에 대한 인간(개인)의 주관적 의미, 동기, 의도, 생각의 결과로서의 행위, 목적, 인간 상호관계를 심층적으로 유추하고 해석한다. 개성기술적 접근법은 연구자가 인간(행위자)의 의도를 중시하고 내부자적 관점에서 대상을 해석하는 방법으로써 질적, 귀납적 연구 방법이다. 지역학 연구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참여관찰법, 면접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초기 지역연구의 특징이기도 하고 기여이기도 한데, 지역연구는 역사적, 문학적, 문화적, 철학적, 서술적, 법제도 연구, 즉 규범적 연구가 주류였다. 1950년대, 60년대의 행태주의 연구가 연구 영역을 확장한 것에 비하면 이론 및 패러다임 분야에서의 지역연구의 기여는 미약한 편이었다.

비서구의 지역 특수성을 강조하는 인문학적 전통에 기반하고 있는 지역특수주의자들과 시공을 초월하는 인간사회의 보편성(서구 일반성)을[15] 강조하는 사회과학적 전통에 기반하고 있는 분과보편주의자들 간 상호 비판은 1960년대 이후 지역연구자들이 분과로부터의 개념과 기법을 적극적으로 지역연구에 적용하면서 양자의 화해 협력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것은 지역연구가 분과학문의 패권체제로 포섭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하다. 그러나 '학제적' '종합적' 연구를 강조하는 지역연구가 미국 대학에서 파편화되고 분절된 분과 학문 및 개별 학과를 비판함으로써 비서구 지역 사정까지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비교연구 방법'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다.[16] 1950년대~60년대에 미국의 정치학계는 권력-엘리트 연구, 정치집단 연구,

14) 과학주의를 추구하는 행태주의 연구방법은 지역연구가 주로 개성(개별)기술적 접근, 형상서술적 연구방법, 서술적 (descriptive), 상대적(relativistic), 역사적(historical), 제도적 (institutional) 연구라고 비판적으로 바라보았음.

15) 서구적인 것은 일반적, 보편적이라는 자민족중심주의의 표현임.

정치문화 연구, 사회학적 연구 등 다양한 비교접근법이 개발되었으며, 이는 지역연구와 경쟁하면서 나중에 지역연구 방법에 기여했다.

다른 한편,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역사학, 심리학 등 분과학문이 유럽 및 미국 중심의 지적 편협성에 매몰되어 있었고, 21세기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연구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그 지역의 언어 이해, 인문학적 이해, 특히 '문화'에 대한 감수성과 이해이긴 하지만,[17] 특정 언어 훈련 중심만의 지역연구가 진행된다면, 그 기간은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분과 학문에서 이론적 훈련을 받은 연구자들이 지역연구에 참여하여 학제적 연구를 한다면, 또는 지역연구자들이 각 분과학문에서 발전시킨 분석 기법을 연마하여 지역연구를 한다면, 즉 행태주의, 후기 행태주의와 지역연구 간 '훈련의 통합(synthesis)'이 이루어진다면 지역연구와 분과학문 간 협력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하나의 머리에 두 개의 기술(two skills in one

16) 정치학에서 비교연구는 1950년대~60년대에 메인(H. maine)에서 시작되었고, 오그(Frederic Ogg)와 진크(Harold Zink)의 '현대외국정부론(Modern Foreign Government, 1950),' 라스웰(Harold D. Lasswell), 러너(Daniel Lerner), 로스웰(C. Easton Rothwell)의 공저 '비교 엘리트연구(The Comparative Study of Elites, 1952),' 헌터(Floyd Hunter)의 '공동체 권력구조(Community Power Structure, 1953),' 마크리디스(Roy C. Macridis)의 '비교정부연구(The Study of Comparative Government, 1955),' 비어(Samuel H. Beer)의 '정부형태(Pattern of Government, 1958)', 알몬드(Gabriel A. Almond)와 콜만(James S. Coleman)의 '개발도상 지역의 정치(The Politics of Developing Areas, 1960),' 달(Robert A. Dahl)의 'Who Governs?, 1961),' 워드(Robert E. Ward)와 마크리디스의 '근대 정치체제: 유럽(Modern Political System: Europe, 1963)'과 '근대 정치체제: 아시아(Modern Political System: Asia, 1963),' 폴스비(Nelson W. Polsby)의 '공동체 권력과 정치이론(Community Power and Political Theory, 1963),' 애거(Robert E. Agger)의 '통치자와 피통치자(The Rulers and the Ruled, 1964),' 로제(Arnold M. Rose)의 '권력구조(The Power Structure, 1967),' '프리드리히(Carl J. Friedrich)의 '입헌정부와 민주주의(Constitutional Government and Democracy, 1968),' 파슨스(Talcott Parsons)의 '정치와 사회구조(Politics and Social Structure, 1969)' .....등의 저서들이 권력 엘리트, 통치자, 정부, 권력구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등을 비교 연구한 결과물임.

17) 정치 및 정치제도, 경제 및 경제제도, 법 및 법제도에 대한 '문화' 즉 정치문화, 경제문화, 법문화의 영향력을 강조함. 그러나 냉전기는 물론이고 특히 탈냉전기에는 문화 자체가 상호 교류의 확대로 섞이고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법, 제도도 매우 빠른 속도로 혼합되고 있음. 예를 들면, 1992년 제정된 '사우디아라비아 통치기본법'은 형식에서는 서구의 헌법 구조(기본법 제1조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헌법은 '지고하신 알라의 경전과 그분 사도의 순나'라고 하고 있음)를 갖추고 있고, 내용은 샤리아(코란과 하디스)와 세속적 서구 이념(사유재산권, 소수이지만 기본권)이 혼합되어 있음. '이란이슬람공화국' 헌법 역시 서구의 헌법구조, 내용상 샤리아와 서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혼합되어 있음.

skull)' '사회 과학의 국제화(internalization of social science)'라고 하는 행태주의 연구자와[18] 지역연구자 간 '새로운 협력과 통합'을 지향해야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너무나 일반적, 보편적 현상을 설명하려는 일반이론(구체성, 경험성 결핍)과 한정적, 제한적 지역의 한정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구축되는 특수이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상화 사다리(ladder of abstraction)'의 중간 쯤에 위치하는, 매일 매일의 일상적이고 경험적인 조사와 엉성하게 짜여진 틈이 있는 거대이론을 매개하고 통합하는 중범위이론(theory of middle range)이 지역연구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넷째. 지역연구자의 '정치화' 문제로서 '연구대상국가와 모국에 대한 중립성 유지'의 문제, 즉 학문의 객관성 확보 문제가 대두했다. 때때로 지역 연구자들은 연구 대상 국가나 지역의 국민이나 시민, 연구대상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고, 연구자 모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다가 '간첩'으로 의심받기도 했다. 지역연구 초기에 지역연구의 목적이 국가의 정책적 대안 모색을 위한 기초 제공이었기 때문에 연구 대상국 정부의 정보부서는 지역연구자 및 유학생을 '간첩'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연구자는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 연구방법이라는 명분으로 과학적 연구방법을 훈련하고 이를 적용하려고 했지만, 현지조사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특히 MENA 지역, 아프리카 연구 대상 국가, 아시아 일부 권위주의 국가의 정치와 관련된 현지조사연구는 거의 불가능했다. 한편 개별 분과학문, 특히 일반화를 추구하는 과학주의 지향 사회과학의 당면 과제는 그들의 과학주의가 제3세계권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일반화를 확대하는 작업이었으나 현지 조사연구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었다. '근대화론' '정치발전론'은 비서구사회가 서구사회의 발전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비서구사회도 발전할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대한민국과 같은 아주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면 1970년대까지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의

18) 행태주의는 분과학문, 특히 정치학에서 1950년대에 대표적인 연구 패러다임이었으며, 1960년대부터 탈행태주의 시기임.

정치발전은 저지, 지체, 실패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남미에서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 중동이슬람 지역에서 '이슬람부흥주의' '칼리파제론', '이슬람국가론', 체제(system, 전체)와 하위 체제(sub-system, 부분)의 상호 관련성을 강조함으로써 국제관계의 총체적 이해를 강조하는 '국제체제론' '국제관계론', 우리나라의 경우 한때 네오 맑시즘 기반 '사회구성체론' 패러다임이 탄생했다. 이러한 이론이나 패러다임들은 일종의 '제3세계 지역학'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이론과 패러다임 및 이념에 기반한 근대화, 발전 전략은 20세기 말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종속적 발전국가' 또는 '신흥 공업국'(New Industrialized Countries, NICs)으로 불렸던 대한민국, 대만(중화민국),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네 마리 용'만이 중진국, 선진국으로 발전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OECD 가입 직후인 1997년 '국가 부도의 날' 'IMF 위기관리 대상국'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금모으기' '부실 기업 정리' 등 대통령의 리더쉽과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다. 서구의 지역연구자들, 특히 비교연구 전공학자들이 대한민국과 대만을 대표적인 지역연구 대상국으로 설정하여 많은 연구를 쏟아냈던 이유이다.

다섯째, 냉전기 후반에, 탈냉전기에 세계화(globalization, 지구화), 정보화,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에 따른 새로운 지역연구의 필요성이 등장했다. 탈냉전기에 서구 선진국 뿐 아니라 기존의 제3세계권에서 국가중심주의와 초국적 세계화(지구화), 지방화(localization), 토착화(indigenization), 민족주의와 탈민족주의, 부족주의, 종교 근본주의, 인터넷의 보편화와 정보화, 탈근대주의(postmodernism), 이민과 난민의 시대[19] 등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 국제관계, 국제정치는 '국가 간 관계' 즉 국가 중심주의로 이해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 '세계화 패러다임'이 등장했다. 교통수단의 발달, 정보화와 인터

19) 농촌에서 도시로, 어느 국가(주로 가난한 국가, 분쟁 국가)에서 다른 국가(부유한 국가, 비교적 안정적인 국가)로 인구이동이 많아지고 있음.

넷의 급격한 보급, 관세철폐 및 자유무역주의는 전 지구적 차원의 상호 연결을 촉진시켰고, 국경을 초월한 다차원적인 상호의존 시대를 가져다주었다. 세계는 더 이상 '분열적인 국가 또는 단위들의 집단'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세계'로 변화하는 것과 동시에 탈중심화(decentered), 탈집중화(deconcentrated), 다핵화(polynucleated), 탈영토화(deterritorialized), 개별화(개인화, 개별 단위화, 개별 국가화)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초공간(hyperspace), 사이버 공간(cyber space)에서 수많은 공동체가[20] 끊임없이 만들어졌다 해체되고 있다. 질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다차원적 공간' '다차원적 공동체'의 시대, '세계정치'(world politics)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CNN과 같은 지구적 미디어의 등장과 1인 미디어(유 튜브로 대표되는 SNS 현상) 등장으로 미디어 소비자들의 수평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타자에 대한 '강력한 인식'이 '희미한 인식'으로 대체되고 있다. 지역연구 시작 초기에 주로 제3세계권인 '타자'에 대한 강력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으나 이제 부정적 인식과 긍정적 인식 간 경계가 모호해져 가고 있다. 지구촌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현지 시각(real time)으로 전달되는 '시간의 종말' '거리의 종말'의 시대로 진입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인종 까지도 '상호 침투'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지역연구를 문화 또는 문화인류학 연구, 즉 정체성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주장들이 무색해지고 있다. 문화의 탈영토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BTS의 'Love Yourself 起(Wonder), 承(Her), 轉(Tear), 結(Answer)과 사이의 '강남 스타일'은 선후진국 관계없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사랑을 받음으로써 K-팝의 탈영토화 현상을 보여주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Parasite)'은 92회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상 시상식(2020년)에서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감독상, 작품상 등 4개 부문의 상을 받음으로써 한국영화의 세계화를 가져왔다. 과거에 '타자' '객체'에서 주체가 되었고 K-무비의 탈영토화 현상을 보여주었다.

---

20)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가상의 공동체(virtual community)'이지만, 오프 라인과 연계된다든가, 화면을 통해 소통한다면 실질적인 현실공동체가 될 수도 있음.

4차산업혁명[21] 시기에 이러한 현상들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 주도권을 둘러싸고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곧바로 '국제정치의 시대' '국제관계의 시대'의 현상과 단절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의 MENA 지역 연구자들도 이러한 변화들을 반영하는 지역연구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오늘날 MENA 지역의 지정학과 지경학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지방적인 것, 국가적인 것, 지역적인 것, 지구적(세계적)인 것의 경계가 모호해져 가고 있다. 기존에 후진국이었던 제3세계권 대부분의 국가들도 3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이미 진입했고, 4차산업혁명을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태환경문제, 테러문제, 범죄문제, 마약문제, 인권문제, 페미니즘 문제 등이 세계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특정 국가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여 연계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지역연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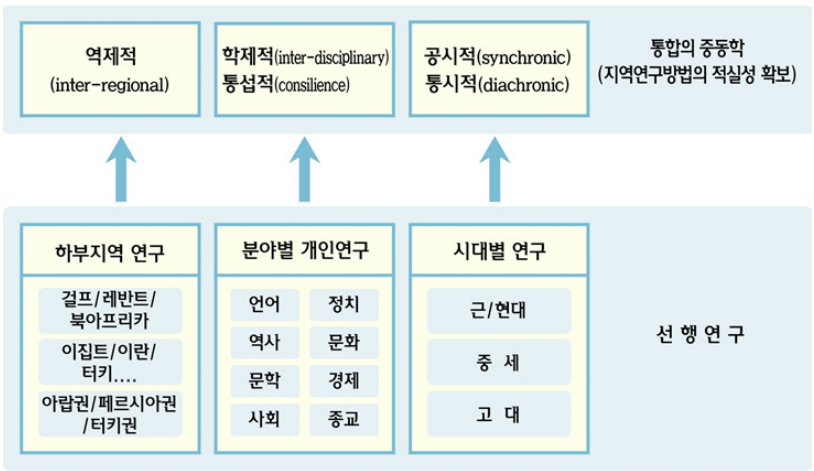
또한 '학문으로서의 지역연구'는 앞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범학제적' '종합적' 연구가 되어야 한다. 기둥(개별분과학문), 대들보(소규모 종합, 학제적), 마룻대(대들보들의 연결. 규모의 종합성 추구, 다학제적) 중에서 대들보와 상량(上樑) 역할을 하는 마룻대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연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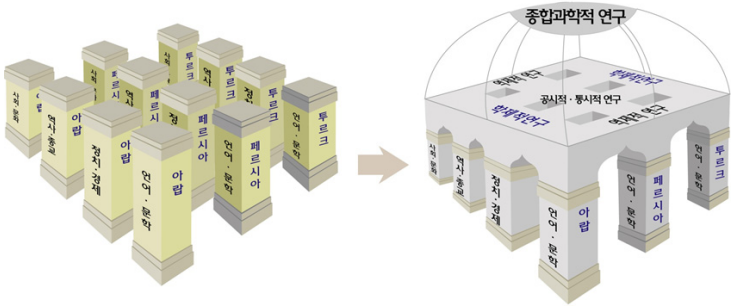
지역연구는 대들보와 마룻대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특정 현상 또는 특정

---

21)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독일이 2010년 발표한 '하이테크 전략 2020'의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에서 '제조업과 정보통신의 융합'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함.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2016년 1월 '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를 주요 의제로 하여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혁명에 기반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로 정의함. 4차 산업혁명의 주창자이자 WEF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에서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 3개 분야의 융합된 기술들이 경제체제와 사회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기술혁명'으로 정의함.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Hyper-Connected)', '초지능화(Hyper-Intelligent)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이 상호 연결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으로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될 것임. 4차산업혁명의 개념에 대한 논쟁이 있음.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185 검색일: 20190907).

문제에 대한 맥락적(암묵적 맥락 tacit context) 설명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언어, 종교,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지역연구 방법론의 초점은 연구자가 선택한 '특정 문제와 주제'에 대한 연구에 접근하기 전에 그것을 받쳐주고 있는 '모르는 맥락'에 대한 연구가 우선이며, 그 '모르는 맥락' 안에서 발생하는 당초의 연구주제(특정 문제)에 대한 연구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MENA 지역 연구 관련 논문들은 '모르는 맥락'에 대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작성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면, 이집트 정당정치 연구에서 '모르는 맥락'인 이집트의 기후, 지형학적 환경, 지경학적 환경 등 인문지리학적 접근방법이나 언어, 종교, 전통적인 가족구조 등 문화인류학적 접근방법을 통해 얻어진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의 이집트 정당의 특수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국제대학원 10년간 졸업생 진출 현황과 지원금

	국제기구	공공부문	외국기업	국내기업	진학	기타	계	지원금(1996~2000년)
경희대	1	32	29	39	10	16	127	70억 원
고려대	18	70	54	224	41	181	588	98억 원
서강대	3	57	32	103	18	27	240	60억 원
서울대	3	84	16	105	60	117	385	99억 원
연세대	11	50	106	130	45	324	666	105억 원
이화여대	14	32	142	105	30	51	374	105억 원
중앙대	1	9	11	105	6	2	134	60억 원
한국외국어대	7	61	59	90	72	49	338	99.5억 원
한양대	5	42	10	186	42	39	324	63.5억 원
합계	63	437	459	1087	324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39/2007.02.28

Ⅳ. 한국의 MENA지역 연구의 과거와 현재

2019년 현재 MENA 관련 대표적인 학회지는 「한국중동학회논총」, 「한국이슬람학회논총」, 「한국아랍어아랍문학」과 한국외대 중동연구소의 「중동연구」,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의 「중동문제연구」, 부산외대 지중해지역원의 「지중해지역연구」가 있고,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단국대학교 GCC국가연구소와 선문대학교 이슬람센터는 아직 논총을 발간하지 않고 있다. 한국국제정치학회에는 <중동아프리카분과>가 설치되어 있어 분과장을 중심으로 매년 MENA 전문가들이 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에 세션을 구성하여 발표토론하고 있다.

MENA지역 전문 학술지 중 「한국중동학회논총」이 가장 먼저 출간되기 시작했고, 한국중동학회 회원이 타학회 회원보다 많으며, MENA 관련 전 학문분야를 포괄하는 학회지이다. 한편, 중동지역 연구자들은 전공분야별로 개인 저술과 공동 저술을 다수 출간해 왔다. 예를 들면,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걸프위기' '쿠르드 문제' '부족주의' '테러와 테러리즘''이슬람 여성'....등을 주제로 공동 저술이 다수 출간되었으나 학문 분야 간 공동연구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즉 지역연구의 종합성과 통합성, 학제성이라는 목표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논총의 경우, 가끔 공동연구 논문이 게재되긴 했지만 역시 종합성과 통합성, 학제성 측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많아 보인다.

「한국중동학회논총」(이하 논총)은 1980년에 처음 발간되기 시작하여 2019년에 중년(40년)이 되었다. 연 1편 출판되기도 했고, 2편, 3편, 4편 출판되기도 했다. 2019년 4월 27일 한국중동학회 학술대회에서 백승훈 교수(정치), 김동환 교수(경제), 임병필 교수(사회문화와 어문학)가 발표한 "한국중동학회 연구 40년: 회상과 전망"에 기초하여 총 논문 편수와 각 분과학문 논문 편수를 다음 <표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1〉 한국중동학회 연구 40년: 한국중동학논총 게재 논문 편수

발표자(학문분야)	분야별 논문 편수
백승훈(정치학)	252편
김동환(경제학)	102편
임병필(사회문화)	133편
임병필(어문학)	120편
종교	67편
기타	95편
합계	769편

「한국중동학회논총」 게재 논문 편수를 보면, 그 동안 선후배 교수들의 학문적 열정이 어떠했는가를 가름해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당대의 MENA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종교, 어문학 연구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는 MENA 지역 연구에 대한 개척자적 열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탈냉전기로 접어든 1990년대는 MENA 연구 2세대들이 새롭게 진입하여 세계화 시대의 MENA 지역 연구에 기여했다. 2000년대는 MENA 지역 연구 3세대들이 새롭게 진입함으로써 MENA 지역 연구가 심화 확대되는 시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에는 연구주제의 다양화와 함께 연구방법론(이론, 패러다임)을 MENA 지역 연구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많아졌으며, 이는 학문적 심도를 깊게 하는 것이다. 일부 논문은 정치경제학, 정치사회학, 문화인류학 등과 같이 학제성을 띠고 있고 비교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대부분은 분과학문의 연구방법을 따르고 있거나 일부 연구방법론이 없는 경우도 있다. 어문학과는 달리 사회과학 논문들은 당시의 시대 상황(정치변동과 MENA 국제관계, 석유, 한국의 중동 진출...등)을 반영하고 있다.

1980년에 최초로 출간된 「한국중동학회논총」 제1권(창간호)에는 다음과 같이 총 8편(정치분야 4, 경제분야 2, 언어분야 1, 종교분야 1)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소련의 대중동정책(1955~1980)"(박종평), "OPEC의 생산전략과 중동 산유국

의 유가정책"(홍성민), "한국 해외건설의 전망과 과제"(박강식), "꾸란 메카계시를 통해 본 초기 이슬람의 성립"(김용선), "아랍어 대격명사의 목적어, 속사 및 부사적 용법에 대한 소고"(배혜경), "Political Violence in the Arab Countries"(이경숙),[22] "The Background and the Characteristics of Jewish Immigration to Palestine before the State of Israel"(유태영), "Egyptian Foreign Policy toward the Arab-Israel Conflicts(1970~1978): Egypt under Sadat's Leadership"(홍순남. 박사학위논문).

1980년 창간호부터 2019년 40-2호가 출간되기까지 총 76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국중동학회 역사로 보아, 아랍어문학 연구자가 수적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분야 논문이 다수인 것으로 보아 MENA지역 정치, 경제 연구자들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가 운영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정치, 경제 관련 논문 뿐 아니라 사회문화, 어문학, 종교(이슬람), 역사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논문이 비교적 골고루 게재되었다. 1970년대 이집트의 정치변동, 석유위기와 오일 달러의 투자(근대화), 아랍-이스라엘 분쟁, 걸프안보, 이란 이슬람혁명 등을 반영하는 논문이 1980년대에 다수 발표되었다. 물론 아랍어문학 관련 논문도 비교적 많이 게재되었다.

1990년대에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었으며, 1980년대~1990년대에는 이슬람과 이슬람원리주의 관련 논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슬람학자가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충원되었을 뿐 아니라, 1979년 이란이슬람혁명 이후 시기로서 (시아) 이슬람주의 이념의 아랍 국가로의 수출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되었던 시기였고, (순니)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의 수와 규모가 확대되던 시기였다. 1980년대에 이란-이라크 전쟁이 발생했고, 탈냉전기의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 과정에서 걸프전(1991년)이 발생했으며, 이슬람주의와 테러리즘의 결합 현상이 나타나면서 MENA에서는 이슬람주의를[23] 포함하는 종교-종파주의, 종교-종파와 결

22) 이경숙의 논문은 내용 상, 논문 구성 상 박사학위논문을 재구성하여 게재한 것으로 판단됨.

23) 이슬람과 이슬람부흥주의, 이슬람주의, 이슬람원리주의, 이슬람근본주의, 이슬람테러리즘 등의 용어가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으며, 순수 종교를 지칭하는 이슬람 이외의 이슬람부흥주의, 이슬람주의, 이슬람원리주의, 이슬람근본주의, 이슬람테러리즘을 정치이슬람(political Islam)으로

합된 소수민족문제가 갈등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슬람 테러리즘은 2001년 9.11 테러에서 극에 달했고, 2011년 '아랍의 봄'으로 촉발된 혼란을 틈타 IS가 급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분쟁(갈등, 전쟁) 관련 논문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사회문제이기도 하고 정치문제이기도 하는 여성문제, 부족문제, 수자원문제 관련 논문이 게재되기 시작했다. 몇 사람이 공동 주제로 하는 연구이긴 했지만 국가별로 연구했기 때문에 종합성, 학제성과는 거리가 있소 보인다. 2000년대 들어서서 어문학 관련 논문 게재 수가 줄어들었는데, 「아랍어와 아랍문학」 발간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국어 논문 중심이긴 하지만 영어논문도 비교적 많았고, 아랍어 논문이 몇 편 게재되었으며, 터키어, 히브리어, 페르시아어가 1~2편 게재되었다. 400쪽이 넘는 논총이 몇 차례 발간되었고, 1998년~2008년 기간에는 연 2회 출간되었다. 2009년부터 연 3회 출간되고 있다.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아랍어와 아랍문학」 「중동연구」 「중동문제연구」 「지중해지역연구」 ....등 여러 논총이 출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한된(크게 증가하지 않은) 연구 인력이 매우 많은 연구물을 산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양적 팽창에 비해 질적, 특히 지역학의 특징인 종합성과 학제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책 결정의 기초 및 대안을 제시면서 '지역학' 고유의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대안은 무엇인가?

첫째, MENA 지역 연구자들의 '학문적 연대감'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정 쟁점'에 대해 각 분과 연구자들이 모이고 토론하고 공동의 논문을 작성함으로써 종합성과 학제성을 담보할 수 있다.

둘째, MENA 지역 연구자 수에 비해 학회 및 논총이 많은 편이다. 현실적으로 통폐합하기는 힘들다. '대학 정치(university politics)'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최소한 1년에 1회는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할 수는 있다.

셋째, 분과학문(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어학, 문화인류학....등)과 MENA 지역학 간 교류와 소통이 필요하다. 분과학문에서 개발한 방법론을 배우고, 지역

표현하기도 함.

특수성(언어, 문화, 정치체제, 경제적 특수성....등)을 전함으로써 상호 소통하게 될 것이고 지역학 고유의 특성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대학(학부)에서 분과 학문을 전공하고 국내외 대학원에서 MENA 지역을 연구하거나, 대학에서 MENA 지역(언어 중심) 연구 후 국내외 대학원에서 분과학문을 전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역학과 분과 학문 간 소통의 장이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다.

Ⅴ. 결론

지역연구(area study)는 1, 2차 세계대전 전후에 미국에서 발아하여 확대되었고, 국가의 정책 입안을 위한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기초 지식 제공이라는 '실용적' 학문으로 시작되었다. 지역연구 학자들은 종합성, 학제성이라는 특성을 '지역연구의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여러 분과 학문 연구자들은 지역연구가 '방법론'이 부재하다고 비판을 해 왔고, 이에 대해 지역연구자들은 각 분과학문을 '현장과 지역 현지 언어 및 문화에 무지'하고 '파편화되고 문제해결 능력이 없는 학문'으로 비판해 왔다. 상호 비판은 결국 수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지역연구라는 차원에서 보았을 때, 「한국중동학회논총」을 포함하는 여러 MENA 지역 관련 논총들에 실린 논문들은 종합성, 학제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편이다. 그러나 공동연구 및 공동저서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왔고, 정부가 구성한 여러 <포럼>에 참여하여 정책결정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교부, 산업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등 거의 모든 부서는 정책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특정 쟁점과 관련된 학계 전문가, 경제계, 관료계 관련자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 있다. 지역학 본래의 실용성, 종합성, 학제성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세계화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MENA 지역 연구 방향성에 대한 논쟁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지역연구, 실용성, 종합성, 학제성, 통섭성, 지역연구의 3각 축, 법칙정립적 연구방법, 형상서술적 연구방법,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역연구어]

참고문헌

Cumings, B. 1999. *Parallax Visions: Making Sense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Held, Colbert C. 1994. *Middle East Patterns: Places, Peoples and Politics*. 2nd ed. Westview Press, Inc.: Boulder, Co.

Khosrowjah, Hossein. 2011. A Brief History of Area Studies and International Studies. *Arab Studies Quarterly, Vol. 33, No. 3/4*(Summer/Fall), pp. 131-142.

Przeworski, Adam and Michael E. Alvarez, Jose Antonio Cheibub, Fernando Limongi. 2000. *Democracy and Development: Political Institutions and Well-Being in the World, 1950~1990*. Cambridge University Press.

Roy C. Macridis. 1986. *Modern Political Regimes: Patterns and Institutions*, Boston: Little, Brown.

Said, E. W. 1979.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Books.

The World Factbook. Central Intelligence Agency. 2011.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fields/2098.html?countryName=Jordan&countryCode=jo&regionCode=me&#jo 검색: 2020.01.25>.

UCLA, Language Materials Projects. "Persian Language." *Iran Chamber Society*. Web. 29 Mar. 2011. <http://www.iranchamber.com/literature/articles/persian_language.php 검색: 2020.01.25>.

이정식 외. 1993. 『정치학』. 서울: 대왕사.

최경희. 2002. "정치체제 연구의 비교 고찰," 이상환. 김웅진 외, 『지역연구: 영역. 대상,. 전략』. 서울: 형성출판사.

하병주. 2002. 중동지역연구의 현황과 과제"한국세계지역학회 2003년도 세 번째 학술회의(6월 23일) 발표 논문.

「한국중동학회 논총」 1호(1980) ~ 40-2호(2019)

논문접수일: 2020년 01월 30일
심사완료일: 2020년 02월 12일
게재확정일: 2020년 02월 16일